

“쿨럭, 쿨럭!”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안타까운 기침이 그 무렵 내게는 아침을 시작하는 소리였다. 졸린 눈을 부비며 고양이 세수를 하고 나오면 할머니는 막내 손녀에게 늘 따스한 아침 밥상을 차려주셨고, 당신은 상에 채 앉지도 못한 채 다시금 다른 하나의 상을 차리러 부엌으로 향하셨다. 그리고는 기침의 주인공인 건넌방 삼촌만의 아침상을 보아주시고 아침을 먹고 있는 내 곁에 와 그제서야 당신도 아침을 드셨다.

언제나 환하게 웃던 삼촌의 얼굴은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와 함께 늘 생기 있고 힘이 넘쳤다. 어린 조카를 목마 태우고 하루 종일 동네 이곳저곳을 뛰고 달려도 숨소리 하나 달라지지 않던 건강한 삼촌은 외할머니 댁이 있는 바닷마을에서 가장 튼튼하고 일 잘하는 선원이었다.

기도

글|박은미(서울시 성북구 동선동1가)



무쇠팔, 무쇠다리를 가진 당신에게 대롱대롱 매달려 즐거워하던 나를 삼촌은 조카 중에서도 가장 귀애하였다. 아버지보다 한 뼘은 크고 날씬한 멋쟁이 삼촌, 나와 항상 재미있게 놀아주던 삼촌은 내게도 가장 좋은 친구였다.

방학이 되어서야 삼촌을 만날 수 있었던 나는 늘 삼촌이 보고 싶어 방학만을 기다리곤 하였다. 그런데 어느 방학인가부터 삼촌은 자신의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으셨다. 나와 조개를 잡고 낚시를 하러 동네 여기저기를 누비는 커녕 밥 먹을 때조차 안방으로 오지 않는 삼촌이 이상스러워 삼촌 방에 뺨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삼촌은 신경질을 내며 문을 닫으라 소리쳤고, 그런 삼촌이 원망스러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구리빛 피부의 건강하던 삼촌은 인형처럼 하얀 얼굴에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이상하게 달라진 삼촌 덕에 나의 방학은 너무도 재미없게 변해있었고, 자주 들려오는 기침소리에 그저 삼촌이 어디가 아프구나 하고 의심할 뿐이었다.

삼촌이 밥을 먹고 나면 할머니는 커다란 양은 냄비에 삼촌이 밥 먹은 그릇을 펄펄 끓이셨다. 그리고 삼촌의 밥과 찬찬도 따로 덜거나 따로 하시는 것 같았다. 그러기에 나는 삼촌이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했다. 기침소리도 밥을 따로 먹는 것도 독감에 걸려 그럴 거라고……. 독감에서 나오면 다시 예전 멋진 모습 그대로인 나만의 삼촌이 될 거라고…….

방학을 마치고 집으로 올라오는 날 나는 삼촌방 문을 살짝 열고 “삼촌 금방 나를 꺼야 나도 독감 걸려봤는데 많이 아프지만 금방 낫더라”고 말하며 삼촌의 쾌유를 기원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다.

서울에 올라와서야 삼촌이 단순한 감기가 아닌 폐결핵임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약간의 감기 증상을 보이는 나의 손을 붙잡고 황급히 병원에 가셨고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삼촌이 폐결핵임을 말씀하셨다.

내가 단순한 감기였음을 엄마는 다행스러워 하셨지만 나는 마음이 아팠다. 폐결핵이 어떤 병인지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였지만 감기가 아닌 다른 병이라 하니 삼촌이 많이 아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놀아주지 않는다고 삼촌에게 투정부렸던 것이 미안해 눈물이 났다.

그해 겨울 선생님이 결핵 환자를 위해 쓰여진다고 내민 싹을 엄마가 주신 돈에 내가 모았던 용돈까지 더해 세장쯤 샀던 기억이 난다. 삼촌이 삼촌처럼 아픈 모든 사람들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이다.

그 해 겨울방학에 집이 이사하고 부족한 공부를 하느라 할머니 댁에 내려가지 못했지만 나는

내가 산 쌀을 붙인 편지 몇 통을 삼촌과 할머니께 보내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 여름방학, 엄마와 함께 할머니 댁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엄마와 함께 가니 기차역까지 마중 나오실 필요 없다는 나의 당부에도 할머니는 기어코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오셨고, 그 옆엔 키 크고 멋진 나만의 삼촌도 함께 서 계셨다.

여전히 하얀 피부, 마른 몸이었지만 삼촌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삼촌의 허리를 끌어안고 펄펄 눈물을 흘렸다.

“우리 은미가 보내준 쌀 덕분에 삼촌이 다 나아. 우리 은미 목마 태워줄까?”

아직 조금은 약해 보이는 삼촌의 목마에 욕심을 부리는 대신 삼촌의 손을 잡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와의 재회를 대신하였다.

10년이 지난 지금 삼촌은 무척 건강하시다. 예쁜 속모도 생겼고 귀여운 사촌 동생도 두 명이나 생겼으며 삼촌댁은 이제 기침소리가 아닌 북적이는 소리로 요란하다. 어린 시절 일이라 잘 기억 나지 않지만 삼촌의 폐결핵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2년여, 할머니의 극진한 간호와 삼촌의 노력으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었지만 그때를 기억하시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하다고 하신다. 단순히 감기로 알고 넘겨버렸던 작은 병이 당신의 폐에서 그렇게 자라고 있었던 것이 말이다. 폐결핵을 앓는 동안 느꼈던 가슴 깊은 통증들이, 그리고 줄곧 이어졌던 기침소리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없이 혼자였던 나날들이, 행여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옮을까 사랑하는 조카까지 멀리해야 했던 아픔을 당신은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하셨다.

작은 노력과 관심이면 발병 초기에 말끔히 고칠 수 있는 결핵이란 병을 키워나간 당신이 원망스러워 아이에게만은, 가족에게만은 늘 주의시키고 작은 감기기운만 있어도 꼭 병원에 가 검진받을 것을 고집한다고 하신다.

결핵……. 이름만 많이 들어봤어도 행여 나나 내 주변의 누군가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병, 그렇기에 더욱 무서운 병……. 나는 그 병 때문에 내 유년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삼촌과 이별할지도 모르는 아픔을 겪었던 것이다.

모두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병이지만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이상이 생기면 병원으로 바로 달려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임을 나는 삼촌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가슴을 에이는 아픈 기침소리가 우리 집에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다시는 들리지 않기를, 어린 시절 삼촌을 위해 모아온 용돈으로 쌀을 샀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금 기도해본다. ♣